

80명 셀리브리티 다 모았네... '보이스트롯' 성공예감

〈유명인사〉



보이스트롯 심사위원단으로 참석한 박현빈·김연자·헤은이·남진·진성(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재즈가수 안희정부터 개그계 대부 심형래, 김종양 인터폴 총재까지.

80명의 셀리브리티(유명인사)를 한자리에 모았다는 것만으로도 MBN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스트롯'은 주목받을 만한 힘을 충분히 갖췄다.

8월 기준 5회까지 방송한 '보이스트롯'은 4회까지는 80명 각각의 사연과 노래 실력을 조명하는 데 분량을 할애했으며, 전말에야 팀 대항전으로 접어들었다. 80명 한 명 한 명이 굴곡진 인생사와 개성 충만한 노래 실력을 갖춘 덕분에 소개 파트가 길어졌다.

특히 '애마부인'으로 인한 편견에 평생 힘들었다는 안소영과 이혼의 아픔을 겪은 안연홍, 여러 번의 결혼과 이혼의 아픔을 겪은 유통, 88서울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김재업, 엠넷 '슈퍼스타K' 시즌1 우승자 조문근 등이 화제 물의를 했다. 시청률도 꾸준히 두 자릿수를 오르내리라고 있다.

이렇게 4회에 걸쳐 예선을 통과한 55명은 전날부터 팀 대항전에 돌입했다. '사연'을 강조한 프로그램 기획 의도답게 팀 미션에서도 '인생'을 여러 가지로 해석한 메시지가 강조됐다. 총 12회로 기획된 '보이스트롯'은 팀 대항전 이후에는 일대일 데스매치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오디션 예능이 흥수를 이루는 가운데 '보이스트롯'은 새로운 스타가 아닌 기존 셀리브리티의 재발

MBN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화제

개그맨 심형래·인터폴 총재 김종양 등

사연·감동 있는 기존 스타 재발굴

불거리·진정성까지 타 프로와 차별화

5회 방영 불구 시청률도 두자릿수

굴을 목표로 해 차별화를 꾀했다. 그러나 너무 유명한 연예인이 아닌 '사연' 있는 사람을 모으는 데 집중해 몰입력을 높였다.

대신 심사위원단은 남진, 김연자, 헤은이, 진성 등으로 화려하게 구성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진정성을 갖고 무대에 올라 긴장하고 울고 하는 모습을 통해 기존 쇼 프로그램들과는 다른 차별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기획과 연출을 총괄한 박태호 MBN 제작본부장도 "불거리에 들을 거리, 그리고 궁금했던 스타들의 숨겨진 사연으로 진정성을 더했다"며 "일반인 서바이벌은 많았지만 이렇게 많은 연예인이 참여하는 서바이벌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자평했다.

반면, 김윤하 대중음악평론가는 "음악과 예능을 접목해 성공한 트로트 서바이벌에 유명인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지금 방송가에서 쓸 수 있는 성공카드라 생각하는 것들을 다 집어넣었다"고 평가했다.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는 "트로트 열풍을 타서 즐기는 프로그램"이라며 "그렇다고 비판할 것도 아닌 게 애초에 '비음악적 예능'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재미가 있으니 사람들이 보고 화제도 되는 것이니 좋겠다. 쇼 오락적 재미를 주는 예능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보이스트롯'



방탄소년단 꼭 닮은 캐릭터 '타이니탄' 출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외양과 가치관을 투영한 캐릭터를 선보인다.

빅히트 IP는 10일 방탄소년단 일곱 멤버의 모습을 본뜬 캐릭터 '타이니탄'(TinyTAN·사진)을 론칭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 제2의 자아가 발현해 캐릭터가 됐다는 콘셉트로, '매직 도어'(Magic Door)를 통해 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했다.

빅히트 IP는 "타이니탄에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특징뿐만 아니라 음악과 퍼포먼스로 전해 온 선한 영향력, 공감 및 자유의 메시지까지 그대로 투영됐다"며 향후 타이니탄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8일에는 현실의 무계에 지친 주인공 앞에 타이니탄이 매직 도어를 열고 나타나 위로를 전하고 성장을 돕는 스토리의 애니메이션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타이니탄은 지난해 10월 방탄소년단의 '아이돌'(IDOL) 무대를 펼치는 예고 영상을 통해 베타 버전이 먼저 공개됐다. 이후 빅히트 IP가 기획을 비롯해 캐릭터 개발, 애니메이션 제작 등을 직접 진행해 타이니탄을 완성했다.

/연합뉴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관객 200만명 돌파

영화 개봉 5일만에... 코로나19 침체 극장가 활력 기대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개봉 5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일일 영화 관객 수를 끌어 올렸다.

10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주말 이틀(8~9일) 동안 107만1248명을 동원하며 누적 관객 수 202만5040명을 기록했다.

개봉 5일 만에 2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올해 최고 흥행작인 '남산의 부장들'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반도'의 200만 관객 돌파 시점보다 이틀 빠르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전체 관객 수도 끌어 올렸다. 8일 하루 전체 관객 수는 72만9450명으로 올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27일(122만8548명) 이후 195일 만에 최다 관객 수다.

전날 기준으로 다른 영화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1995개 스크린에서 1만833회 상영됐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마지막 청부살인 미션 때문에 새로운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인남(황정민 분)과 그를 쫓는 무자비한 추격자 레이(이정재)의 추격과 사투를 그린 액션 영화다.

다른 한국 영화 대작들도 나란히 주말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오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했던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주말 박스오피스 2위는 15만5814명을 불러모은 '강철비2: 정상회담'이 차지했다. 누적 관객 수는 154만2394명이다.

누적 관객 수 369만명을 기록한 '반도'는 같은 기간 7만4279명을 추가하며 3위에 올랐다.

이날 오전 8시 30분 현재 실시간 예매율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29.9%)인 가운데 오는 12일 개봉 예정인 '오케이 마담'이 24.4%로 2위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연합뉴스

신하균-여진구 JTBC '괴물'로 만난다

JTBC는 내년 상반기 방송할 드라마 '괴물'에 배우 신하균과 여진구가 출연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드라마는 연쇄살인마를 잡기 위해 법과 원칙을 부숴버린 두 남자의 이야기다. '괴물은 누구인가! 너인가, 나인가, 우리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사건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다면성을 치밀하게 쫓는다.

'열여덟의 순간'에서 세심한 연출을 보인 심나연 PD와 '매드독' 등을 쓴 손수진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신하균은 무서운 것 없는 강력계 형사였지만, 지금은 변두리 파출소에서 은갖 잡일을 도맡고 있는 만양 파출소 경사 이동식으로 분한다.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던 그의 앞에 이기적인 유전자를 장착한 한주원(여진구 분) 형사가 파트너이자 상사로 전임하며 변화를 맞는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the 사라헤어</p> <p>북구 북문대로 159번길 39 (운암동 일신아파트 2차상가 1층)</p> <p>컷, 염색, 일회용품, 매직, 샴푸, 헤어스타일링, 크리닉</p> <p>☎ 062)522-2380, 010-8200-9182</p>	<p>약초당건강원</p> <p>동구 산수동 557-33(산수시장동)</p> <p>인삼·발효·홍삼·생약초음·봉어즙·장어즙·달걀·참깨·포도즙·각종고춧가루</p> <p>☎ 062)224-9559, 010-3617-9779</p>	<p>명품크리닝 전문점</p> <p>서구 치평동 275-22(우리들병원옆)</p> <p>명품스키·운동화·가방·캐주얼·염색·복원·수선·일회용·직접·명품세탁·유모차·전용세탁소·오븐(비대면 수거·배달, 문자접수)</p> <p>☎ 010-6559-6700</p>	<p>동양철학원</p> <p>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옆길)</p> <p>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p> <p>택일, 개인지도함</p> <p>☎ 062)224-7687, 010-2611-7687</p>		
<p>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p>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p> <p>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p> <p>직접 전화 및 배달 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p> <p>☎ 062)526-5475, 010-8621-5959</p>	<p>(유)신화로프</p> <p>본점: 나주시 청동길 244</p> <p>PP로프, 안전로프, 형광로프, PE로프, 비닐, 천막, 안전장 전국최저가도·소매</p> <p>☎ 061)335-2301~2, 010-3429-6400</p>	<p>인철(仁喆)익스프레스</p>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p> <p>포장·일회용품, 화물운송</p> <p>"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p> <p>☎ 062)572-2323, 010-9509-4422</p>	<p>어주민물장어탕</p> <p>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로 82번길 4-7</p> <p>민물장어탕·민물장어구이</p> <p>포장가능합니다</p> <p>☎ 061)285-1255, 010-8620-8171</p>	<p>사랑방공인중개사사무소</p> <p>북구 운암동 미라보3차@상가동 3호</p> <p>아파트, 빌라, 주택, 상가, 토지, 임야매매·전월세</p> <p>각종 부동산 매매 상담 신용분위</p> <p>☎ 062)574-8924, 010-9332-8184</p>	<p>석당화랑</p> <p>동구 공동예술의거리</p> <p>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p> <p>고서화 위탁판매</p> <p>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p>고전방</p>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p> <p>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p>미가한우명가</p> <p>나주시 풍물시장 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옆)</p> <p>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p> <p>☎ 061)333-0505, 010-4390-3366</p>	<p>비비가</p> <p>동구 대인동 영무파라드 2차 1층</p> <p>"완벽한 한그릇 비빔밥"</p> <p>비빔밥 & 해산물</p> <p>비비가비빔밥·가정식·생선·비빔밥·연어초밥·회</p> <p>☎ 062)229-1008, 010-8572-0999</p>	<p>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p> <p>북구 북문대로 35(운암동)</p> <p>상가·아파트·주택·토지·각종 부동산 매매 상담</p> <p>고객만족! 책임중개!</p> <p>☎ 062)225-3303, 010-2651-6409</p>	<p>한성꽃화원</p> <p>나주시 나주로 71(송월동 LG화학앞)</p> <p>근조·축화화환, 동·서양관, 관엽전국배달</p> <p>☎ 061)334-3200, 010-3623-6921</p>	<p>초대화랑</p> <p>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p> <p>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p> <p>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p>장어수산</p> <p>북구 서암대로 88(신안다리아)</p> <p>무항생제 장어사육</p> <p>포장배달·전국 택배 배송, 선물포장드립니다.</p> <p>신용분위</p> <p>☎ 062)412-1961, 010-5828-1961</p>	<p>우리식당</p> <p>남구 지석동 73-5번지</p> <p>(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p> <p>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p> <p>(회사·단체 장부 환영)</p> <p>☎ 062)381-0066, 010-3085-0140</p>	<p>신신예술의집</p>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p> <p>기념품 전문 판매점</p> <p>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p>마루전통한방차전문점</p> <p>나주시 영산포로 184-1(영산포우체국앞)</p> <p>심전대방탕, 생화탕, 대추탕, 오미자차, 생강차</p> <p>각종 과일주스, 구워낸 가래떡과 초창을 드립니다</p> <p>☎ 061)333-6567, 010-7200-6567</p>	<p>만복당</p> <p>동구 제봉로 184번길 5-9(대인시장내)</p> <p>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p> <p>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p> <p>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p> <p>☎ 062)959-0680, 010-4602-0680</p>	<p>박당화랑</p>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p> <p>한국화, 서양화 매대 및 감정</p> <p>대표 박한승 ☎ 062)222-6866</p>